

승승장구 페퍼스, 시즌 최다승 또 갈아치웠다



정관장 5세트 점전 끝에 13승
조이 40득점 폭발 '시즌 최다'
박은서·시마무라도 승리 견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정관장을 상대로 시즌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다.

AI페퍼스 페퍼스는 1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의 맞대결에서 40점을 폭발한 조이를 앞세워 세트스코어 3-2 (25-17 25-19 21-25 22-25 15-5)로 승리했다.

지난 15일 IBK 기업은행과 원정 경기서 3-1 승리를 거두며 시즌 12승이라는 장단 최다승 기록을 세웠던 페퍼스는 상승세를 이으며 '13승'으로 최다승 기록을 다시 썼다.

페퍼스는 1세트에서 기본 좋은 출발을 했다. 9-5로 리드를 잡은 페퍼스는 이후 흐름을 내주지 않았다.

조이-하혜진의 블로킹과 박은서의 득점까지 이어지며 15-7로 격차는 벌어졌고, 고예림이 교체 투입돼 오랜만에 코트르 복귀했다.

페퍼스는 조이의 연속 득점과 이한비의 오픈 공격으로 22-14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굳혔고, 25-17로 가볍게 첫 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에서도 페퍼스가 흐름을 이어갔다. 박정아의 블로킹 득점을 시작으로 페퍼스가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4-0 리드를 잡았다.

이어 박은서-조이의 오픈 공격으로 16-10까지 벌어졌고, 조이가 서브 득점으로 세트포인트를 만들었다. 시마무라에 이어 박사랑의 블로킹까지 나오면서 페퍼스는 25-19로 세트를 가져왔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페퍼스는 이날 13승째를 기록하며 구단 최다승을 다시 경신했다. (KOVO 제공)

페퍼스의 1-2세트 누적 범실이 3개에 불과한 반면, 정관장은 10개를 기록했다.

그러나 3세트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페퍼스가 3세트에만 10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흔들렸고, 1-3세트 리시브 효율도 17%로 떨어져 정관장의 30%와 격차가 벌어졌다.

3-0으로 리드를 잡았던 정관장은 이후 점전 끝에 자네테와 이선우의 속공으로 8-7를 만들었다.

조이의 공격 효율이 떨어지며 흐름을 내렸고, 정

관장 자네테의 활약으로 점수는 12-20까지 벌어졌다.

페퍼스는 시마무라의 속공 득점을 시작으로 박은서-조이를 앞세워 추격에 나섰다. 정관장 박여름과 자네테의 킥오픈이 연속으로 터지며 21-25로 3세트를 내줬다.

4세트는 점전이었다.

하혜진의 서브 득점을 시작으로, 조이의 블로킹까지 더해지며 페퍼스는 7-4로 앞서갔다.

그러나 정관장이 곧바로 3연속 득점으로 7-7 동점을 만들었고, 정관장 박은진의 블로킹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리드를 내준 페퍼스는 시마무라의 서브에이프로 15-16을 만들며 1점차 추격했으나 범실이 겹쳤고, 막판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22-25로 패했다.

승부는 결국 5세트로 향했다.

마지막 승부에서 페퍼스가 다시 한번 뒷심을 발휘하며 승기를 잡았다.

페퍼스는 3-3 동점 상황에서 시마무라의 속공을 시작으로 조이의 킥오픈, 박은서의 오픈이 연이어 터지며 6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12-4로 승기를 잡은 페퍼스는 시마무라의 서브를 시작으로 조이의 백어택 득점으로 15-5를 만들며 5세트를 가져왔다.

이날 조이는 시즌 최다 득점(40점)을 달성했고,

박은서(22점)와 시마무라(11점)도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박은서 기자 training@kwangju.co.kr

“KIA 마운드 잘 준비되고 있다”

KIA 김지용 투수 코치

부상 관리·선수들 소통 최우선

신·구 선수 조화 속 시즌 준비

양현종·이의리 맞춤 지도 시작

타이거즈 일원이 된 김지용(사진) 투수 코치가 기대감으로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시즌 기록 많은 마운드로 고전했던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이종걸 메인 코치와 김지용 불펜 코치로 투수진을 이끌어간다.

2010년 LG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김지용 코치는 투수에서 플레잉코치를 거쳐 투수 코치로 지도자 경험을 했고, 올 시즌 KIA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신예 투수들과 호흡을 맞췄던 김지용 코치는 아마미 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본격적인 마운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지용 코치는 “(2차 캠프지인) 오키나와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상 없이 오키나와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생각보다 선수들이 진지하고 노력도 많이 한다. 밖에서 보는 것과 확실하다. (상대로)아구장에서만 하는 것만 봐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덜 된다”고 이야기했다.

KIA를 대표하는 투수 양현종과 이의리의 준비 과정은 특히 그를 놀라게 했다.

김지용 코치는 “양현종과 이의리 선수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양현종은) 존경스러울 정도로 하는 것을 보고 대투수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속 깊고 생각이 많은 이의리를 보면서 ‘맞춤형 코칭’도 생각하고 있다.

김지용 코치는 “생각을 줄여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이 많은 선수는 털어주고, 생각이 없는 선수는 생각을 많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중간에서 조율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부상 관리’다.

김지용 코치는 “부상이 가장 중요하다. 부상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다. 안 아파야 상대와 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 KIA가 부상 악몽에 시달렸던 만큼 ‘부상 관리’가 더 중요해진 상황. 선수들이 너무 잘 준비해서 오히려 걱정일 정도다.

김지용 코치는 “어린 친구들이 몸들을 너무 잘 만들어서 좋기도 한데 걱정도 된다. 시즌까지 기간이 있는데 지금부터 너무 좋으면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경험들이 없어서 옆에서 세계 던지면 오버 페이스 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오버페이스 하지 않게 돌려주려고 고 한다.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년 1년 연차를 먹다 보면 되가는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넘치는 의욕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소통과 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즌을 보내는 게 그의 목표다.

김지용 코치는 “대화를 통해서 조절만 잘해주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선수들과 벽 없이 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원래 있던 것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활용 자원이 많아졌으니까 동결 코치님이상 상의 잘해서 좋은 컨디션인 선수 위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피겨 이해인 프리 진출

쇼트 9위... 14위 신지아도 함께

한국 피겨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사진)과 신지아(세화여고)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각각 9위와 14위에 오르면서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따냈다.

이해인은 18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61점에 예술점수(PCS) 32.46점을 합쳐 70.07점을 받아 이번 시즌 자신의 기존 최고점(67.06점)을 3.01점 끌어올린 새로운 시즌 베스트를 작성했다.

첫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자신의 시즌 베스트를 경신한 이해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긴장한 와중에도 얼음판에서 느끼는 발 감각이 더 집중됐다. 첫 번째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 이후 한발로 에지를 그리면서 나오는 연결 동작을 많이 연습했지만 작지 때 날이 얼음에 박히는 통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건 아쉽다.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스마다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점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다”고 시즌 최고점 경신 소감을 밝힌 이해인은 “긴장이 많이 돼 다리가 후후후를 떨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연습해왔던 것들을 믿고 저 자신을 100% 믿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인은 프리 스케이팅 준비에 대해 “모든 연기 요소에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오늘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있던 만큼 프리 스케이팅에선 준비했던 요소들을 빼놓지 않아 보여드리겠다. 프리 스케이팅은 집중해야 할 요소들이 더 많아 긴장하겠지만 더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인과 신지아는 오는 20일 24명이 출전하는 프리스케이팅을 통해 순위 끌어올리기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웃놀이·떡국...아마미 캠프도 설날

세심한 준비·유쾌한 이벤트로 팀워크 강화



KIA가 스프링캠프에서 떡국과 웃놀이로 명절 기분을 냈다. 풀루러로 제작한 웃가락(왼쪽)과 일본식 떡을 넣어 만든 떡국. (KIA 타이거즈 제공)

다. 8명의 코치가 선수 드래프트에 나서 조를 편성했다.

사다리 타기를 통해 대진표를 완성한 KIA는 치열한 예선전을 벌였다. 예전 승부 끝에 이범호 감독조와 김주찬 타격코치조가 결승에서 맞붙었



고, ‘아마미오시마 웃놀이 대회’는 김주찬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주찬 코치의 안목이 빛난 선수단 구성이었다.

나성범, 양현종, 성영탁, 윤도현과 함께 해럴

드카스트로와 제리드 데이이 김주찬조에 이름을 올렸다. 두 외국인 선수는 예선전부터 ‘북병’으로 맹활약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KIA는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예선전부터 피치클록을 적용, 10초 안에 웃가락을 던지도록 했다. 정확하고 공정한 웃놀이 대회를 위해 결승전 장소에 트랙맨도 설치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도 도입해 공정한 웃놀이대회를 치렀다.

웃놀이 준비 작업에는 이우중 매니저의 활약이 컸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웃가락을 제작하기 위해 이우중 매니저는 아마미오시마를 뒤졌다. 그리고 풀루러로 KIA표 웃가락을 만들어 손조롭게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세심한 준비와 노력으로 KIA 선수들은 유쾌한 설날을 보내고, 팀워크도 강화했다.

김성호 운영팀장은 “선수들에게는 힘들고, 지루할 수 있는 시기다. 사장님과 단장님께서 기본 전환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설날 이벤트를 준비했다. 선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드러냈던 설날 분위기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이 유쾌한 설날 이벤트로 재충전을 했다.

KIA 타이거즈는 일본 아마미오시마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설연휴에도 KIA는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캠프가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15일 휴식날을 보냈던 KIA는 이후 연휴 기간에도 훈련을 이어갔다.

그래도 설은 설. KIA 프런트는 타국에서 설날을 맞는 선수들을 위해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

선수들은 설 당일이었던 17일 점심에 ‘아마미 스타일 떡국’으로 명절 기분을 낼 수 있었다.

KIA는 미리 호텔 측에 부탁해 떡을 준비했다. 한국식 가래떡은 아니지만 호텔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떡을 만들어 ‘떡국’을 준비했다.

KIA가 제공한 레시피에 맞춰 선수단에 가장 인기가 높은 닭곰탕 육수를 베이스로 한 떡국이 완성됐다. 이날 준비된 특별식은 일찌감치 동이 날 정도로 선수들의 반응이 좋았다.

선수단은 훈련이 끝난 뒤에는 웃놀이 대회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프로야구단의 웃놀이답게 조편성부터 남달랐